

# 아함경

에서 건진 지혜 (제18화)



## “불효자의 공양은 거절하라”

〈출전: 사분을 제53권: 22-959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스님, 이승복으로  
같이 입으시지요.



제 작은 성의입니다.



김보살님이  
주신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신통계일 목련존자  
얘기를 아시지요?



신통력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본 목련존자는

지옥 끝까지 어머니를  
찾아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공덕을 대신 쌓고자 애쓰지요.



.....



김보살님 어머니께서는

요즘 어머니께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것도 모르시지요?

하나 뿐인 딸을 위해  
어제도 불공을  
드리고 가셨답니다.



김보살님...  
살아 생전의 불효는

돌아가신 후 그리움과  
후회로 그 업보를  
받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한번  
찾아 뵙는 게 어떨까요?

스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들었다

사스 공포

## 자신을 지키는 등불

사스라는 이름의 괴질 때문에 전세계가 떨고 있다. 그것의 본래 이름이 급성호흡기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영문 약자인 'SARS'라고 불리다 보니 더욱 괴질처럼 보여서 공포감이 더한 것 같다. 4월 28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5천 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 321명이 사망하였다. 약 6%의 치사율이다. 일부에서는 마치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에서 등장하는 세기말적 징후를 떠올리며 곧 종말이라도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여기에는 언론도 한 몫을 한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연일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론이 선재는 조금 의심스럽다.

200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2%, 음주사고의 경우는 2.3%이다. 곧 전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공포를 느끼게 했던 에이즈의 경우, 국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수는 2003년 1월 현재 2,008명, 총 421명의 감염자가 사망했다. 사망률이 20%나 된다. 물론 사스를 에이즈라는 질병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는 있을 것이다.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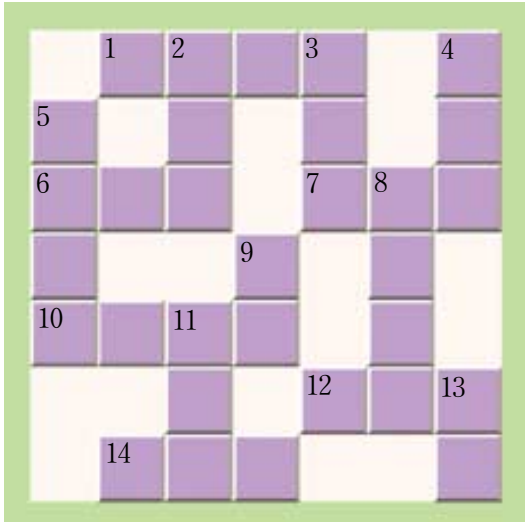
만 선재의 생각으로는 최근의 분위기는 너무 지나치다. 국내에서 감염자로 확인된 사람이 이제 겨우 1명이다. 15명 정도는 아직도 의심스런 상태이다. 한술 더 뜨는 것은 위험한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을 향해 귀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다.

<불분해성경>에서는 신구의(身口意) 3업이 청정하지 않고 탐욕과 애욕이 가득 차 있으며 마음을 품고 악의에 차 있는 등 13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 속에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중야화경>에서는 "마음 속에 의심하는 병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사스는 두려운 전염병인데 틀림없이 만 무력대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포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두려운 선재는 부처님오신날에 자신을 지키는 마음의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는 듯하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 교리퍼즐



### 가로

1.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수계(水界)를 집행하는 장수(金剛威德). 6. 잡힌 물고기와 새를 연못, 늪, 산야에 놓아주는 법회. 7. 삼신(三身)의 하나. 법의 성품인 만유제법의 본체를 뜻함(法身佛). 10. 선종의 종지로 문자에 얽매지 않는다는 뜻. 12. 악인이나 여인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 경. <묘법연화경>을 약칭해 부르는 이름. 14. <법화경> <금광명경>과 함께 호국삼부경의 하나로 <인왕반야바라밀경>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인왕반야경>으로도 불리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仁王經).

<419호 「교리퍼즐」 정답>



### 세로

2.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여 행하는 법회(降誕會). 3. 수행승이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 것(斷肉法). 4.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현했던 부처님들. 5. <화엄경>의 본존인 대방광(大方便)의 이치를 증득한 부처님(大方廣佛). 8. 신장을 그림으로 그려 벽에 거는 족자. 9. 중국 고대의 사상가. 유교의 개조(開祖). 11. 신라의 제30대 왕. 681년 왕이 죽자, 유언에 따라 화장한 뒤 경주 양북면 불길리 앞바다 대왕암에 안장(安葬)한. 13. 경적(驚駭), 타이르는 것. 좌선할 때, 나타내지는 마음이나 졸음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를 말한다.

### 건강해지는 비결과 부작용 없고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 책의 주요 내용

청국장찌는 놀라운 효능 \*\* 청국장 먹고 효과 봤어요 \*\* 집에서 청국장 잘 만드는 법 \*\* 내가 만든 청국장 잘 보관하는 법 \*\* 청국장 생으로 맛있게 먹는 법 \*\* 청국장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 '청국장 다이어트'로 17kg을 감량한 김한복 교수의 다이어트 체험기 \*\* 김한복 교수의 남편한 둘째 만들기 10계명

#### '청국장 다이어트'의 주인공 김한복 교수는?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미생물학과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AIST) 전자생물학 박사 • 1997~1998년 미국 스탠포드 의대 미생물 및 면역학과 연구원 • 1992년부터 호사대에 재직하며 미생물 청국장 연구 시작 • 2000년 1월 청국장 박사 논문 출제(논문명: http://chungkook.com) 개설 • 현재 호서대학교 생물정보학과 교수

• 교보문고 건강 베스트 2위 • YES24 건강 베스트 5위 • 알라딘 건강 베스트 6위

냄새 안나는 청국장을 개발한 미생물학 박사 김한복 교수의

# 청국장 다이어트 & 건강법

김한복 지음 / 272쪽(흑판) / 14,500원



• SBS TV '일하고 싶은 법' 방영(2003. 3. 11)  
• MBC TV '생방송 파타리' 방영(2003. 3. 11)

마음의 문을 여는 한암 대종사 설법

# 할!

중버슬은 담벼슬만도 못하다 하였거늘,  
나 같은 늙은 중에게 감투가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대종사의 활구법문(活句法門)!



일본 조동종의 명승(名僧) 서도호가 풀었다.  
"스님께서는 풀어서부터 일산하여 지금까지 수도하여 왔으니, 만년의 경지와 초년의 경지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한암스님이 잘라 대답하였다.  
"모르겠노라."

한암 대종사 지음 / 홍신선 주해 / 208쪽 / 10,000원